

# 혜암 스님 삶이 그림의 '화두'

## 최문정 화백, 한벽원미술관서 '유년의 기억' 개인전



독특한 색채들이 날개를 단 듯 캔버스 안을 활보한다. 오방색이 화려하게 향연하는 이 작품(사진)은 불화가 최문정(41) 화백의 작품이다. 최 화백은 4월 21~30일 서울 삼청동 한벽원미술관에서 '유년의 기억'이란 주제로 개인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 그녀는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전수교육조교, 문화재 수리 기술사 제417호라는 이력과는 대조적인 비구상화 70여 점을 선보인다. 작품들 중 다수는 본지에 연재했던 정찬주 작가의 소설 '가야산정진불'의 삽화로 그린 것들이다.

30년을 넘게 붓을 벗 삼아 작품 활동을 해온 최문정 화백의 이번 전시는 그에게 '일탈'과 같은 존재이다.

전통불화와 동양화, 서양화가 접목된 최문정 화백의 비구상화. 본지 연재했던 '가야산정진불'의 삽화로 그린 작품들.



최문정 화백은 "가야산정진불"의 주인공인 혜암 스님의 일대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새로운 작품세계에 도전할 수 있어 기쁘고, 나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혜암 스님의 삶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동안은 마치 '화두'에 든 것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최 화백은 전통과 고집하는 것에서 벗어나, 전통과 현대를 함께 접목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작품을 통해 표현해 내고자 했다. 1주일에 한번씩 그림을 완성해 내는 일은 그림을 그리는 이에게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다. 하지만 최 화백은 60회의 연재를 여법하게 회화했다.

최 화백의 이력은 화려하다. 불교집안에서 태어나 일찍이 만봉 스님의 제자로 역량을 키워나갔던 그녀는 다수의 단청작품과 다양한 수장경력을 자랑하고 있다. 새로운 용어 목말라 하던 최 화백은 불화, 동양화, 서양화를 고루 접하며 단청과 탕화에 기반을 둔 새로운 양식의 순수미술로 자신의 작품세계를 넓혀갔다. 한지 및 소나무에 아크릴로 그린 그림들은 불화의 전통성을 현대화하려는 작가의 시도를 잘 말해주는 부분이다.

그의 작품들은 새로움을 향해 계속 정진하고는 있지만 결코 작위적이거나 인위적이지는 않다. 스탠리 카벨이 "잘 훈련된 기술은 오히려 기술적 규범 속에서 해방시켜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인위와 작위를 제거한 예술적 표현으로 귀결되게 해준다"고 말한 것처럼.

최문정 화백은 불화, 동양화, 서양화를 각각 10년 동안 공부하면서 그 어떤 양식에도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작품을 표현하고 있었다.

최 화백은 이번 개인전을 맞아 "탱화와 단청, 한국화, 벽화 등을 통해 배운 모든 기법과 정신상태를 현대미술의 비구상화를 통해 표현하고자 노력했다"며 "이러한 작품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기쁘다. 앞으로 전통불화의 창조적인 계승과 불교적인 사상과 미학을 담은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유년의 기억'이란 전시 제목은 단순히 혜암 스님의 일대기를 말하는 것이 아닌, 최문정 화백이 새로운 작품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 그간의 과정을 말해주는 듯하다. 앞으로 최 화백이 어떠한 여정에 올라 화장세계를 펼쳐보일지 기대해 본다.

이은정 기자

# 조계사서 '100일 간의 승무이야기'

불교의식무용인 승무가 100일 간의 대장정에 나섰다. 대륙로 성균소극장에서 봄, 여름, 가을로 나눠 공연되는 '100일 간의 승무이야기'는 4월 25일부터 긴 여정의 춤사위를 풀이 놓는다.

'100일 간의 승무이야기'는 대중과 좀 더 긴밀한 소통을 위해 대산원의 시작과 끝을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펼친다. 그동안 1주일 이상을 넘기지 않았던 승무 공연은 전통 예술이 대중에게 한발 더 다가와 소통의 장을 열고자 이 같이 100일 간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또한 우리의 전통 춤이 보통 춤꾼과 보는 이가 함께 만들어가는 춤판으로 이뤄져 있는 것을 감안해, 독무로 진행되는 승무의 특성을 과감히 버리고 야외공연도 시도했다.

승무는 독무로 이뤄지는 춤으로, 고깔모자에 얼굴이 가려져 춤꾼의 표정을 잘 살필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관객은 춤꾼의 춤사위를 통해 그 내면의 세계를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연유 등으로 공연은 무용수의 숨소리 하나, 땀방울 하나까지 관객이 느낄 수 있도록 70석 규모의 소극장에서 열린다.

또한 공연장 무대는 한적한 산사를 찾아가듯, 사랑방이나 정자처럼 구성과 관객의 적극적인 공연관람을 유도했다. 이번 공연의 춤은 화려하고 다양한 멋보다 깊이 있고 정감 있는 무대로 꾸며진다.

이번 공연에서 선보이는 승무원단은 무형문화재 제27호 백사 한영숙(1920~1989)의 춤이다. 한영숙의 춤은 대나무에 비유될만큼 남성적인 것이 특징이다. 승무는 모든 춤의 기본이 되는 춤으로 아랫배와 하체를 움골게 잡아주는 느리고 깊은 발놀음과 절제되지만 곧고 뿌림으로 넘어가는 상체의 장식놀음이 춤의 중심을 이룬다.



뿌림의 장식놀음이 돋보이는 승무.

이 밖에도 경기도당장 장단에 정적인 손놀음과 빠른 발놀음이 백민인 '태평무', 춤의 정수로 불리는 '살풀이'가 풍류패의 생생한 반주에 맞춰 공연된다.

승무는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예능보유자 이에주를 사사한 한국춤예술원대표 이철진의 독무로 꾸며진다. 이밖에 한국춤예술원 단원들과 전통예술단 아우름의 송영숙, 이철진풍류패도 함께 출연해 태평무, 살풀이, 기악연주 등을 선보인다.

공연은 △봄 4월 25일~5월 23일 △여름 7월 10일~8월 15일 △가을 10월 19일~11월 21일 열리며, 평일은 오후8시 주말과 공휴일은 오후4시에 공연한다. 조계사 대웅전 앞 야외공연은 4월 25일 11~12시 사이 진행된다. (02)741-3581

이은정 기자

# '법구경' 클래식과 조우하다

## 니르바나 봉축음악회 '칸타타 담마파다' 28일 KBS홀

<법구경>가르침이 음악으로 나뉘어 중생들에게 설법된다.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4월 28일 오후 7시 30분 KBS홀에서 봉축음악회 '칸타타 담마파다'를 개최해 부처님 진리를 전한다. 담마파다는 '진리의 말씀'이란 뜻으로 한역으로 <법구경>을 말한다. '칸타타 담마파다'는 이 <법구경>의 내용을 음악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칸타타 담마파다' 공연은 160명이 넘는 연주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대규모 공연으로, 준비기간 만도 1년 이상이 걸렸다.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강행진 단장의 야심작이 될 이번 대형 칸타타는 작곡 김대성, 작사 서공식·이인자, 오케스트라 지휘 최선용, 합창단 지휘 원영석이 맡았다. 강행진 단장은 "서양에는 기독교를 근간으로 하는 바흐의 '카테수난곡', 헨델의 '메시아' 등 종교

음악임에도 불구하고 널리 알려져 있는 곡들이 많다"며 "불교의 역사가 1600여 년이나 됐는데도 우리에게 쉽게 떠올릴만한 불교음악이 없다는 현실을 자각해 이 같은 공연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칸타타 담마파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문화적 예술적으로 승화시켜 현대적 감각으로 완성된 불교 음악으로 40여분 연주된다. 칸타타는 40여 명의 스님이 만들어내는 독경 소리와 동서양의 음악이 한데 어우러져 <법구경>의 진리를 전한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이호신 화백의 천불수화설법의 일부가 무대에 올려져 관심이 모아진다. 이밖에 도 행사는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 단체를 초청해 상상과 화합이라는 부처님의 뜻을 함께 나눌 예정이다. (02)718-4599

이은정 기자

# 묵향 배어난 선화 35점 일본에 소개

## 선화가 김양수 화백 日 안조갤러리서 개인전

선화가 김양수 화백이 5월 3~9일 일본 안조 시민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다. 나는 여기에서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한국의 바람'이라는 모임의 주관으로 이뤄진 초청 전시이다.

'한국의 바람'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본인들의 모임으로, 서울 인사동에서 김양수 화백의 작품을 관람한 뒤 초청전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화가 김양수 화백이 5월 3~9일 일본 안조 시민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다. 나는 여기에서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한국의 바람'이라는 모임의 주관으로 이뤄진 초청 전시이다.

김양수 화백은 은은한 묵향에 고요하게 피어나는 선화 35점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은정 기자

# 비누독을 연화시키는 삼베웨이셀타올



삼베웨이셀타올 - 각 6,000원

### 삼베 타올의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맛이 깃든 삼베 타올은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향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헨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맑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 삼베웨이셀타올 세안법

- ① 삼베웨이셀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②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③ 삼베사워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 ④ 3~4일이 경과 하면 맑아진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 ⑤ 피지, 각질연화효과가 있어 혈색이 좋아짐에 화장이 잘 받습니다.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 특허출력제품임

- 용 명 - 예고은 삼베 사워 타올
- 재 질 - 헨프사, 죽사
- 용 도 - 세안 및 전신목욕, 탭핑이, 냉수마찰, 스포츠타월, 등산할 때, 한지목욕시사용, 건조마사지용
- 규 격 - 세안용 (30cm x 28cm)
- 제조원 - 초록삼원 (한국산)

### 삼베수세미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맛이 깃든 삼베수세미는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향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헨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시가세척시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부드러운 느낌과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며 사용하시는 분들은 소박 하고 겸손한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 삼베수세미의 효과

- 다이옥신 피해와 수질오염(명숙에서 자연소멸)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향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 사용 후에는 세탁 후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건조합니다

- 용 명 - 예고은 삼베 수세미
- 재 질 - 헨프사, 죽사
- 용 도 - 식기세척, 과일세척, 목욕침소 등
- 규 격 - 30cm x 30cm(S) / 30cmx50cm(L)

# 위생·항균·향독 삼베수세미



삼베수세미용 - 각 4,000원

# 건포마사지용 삼베사워타올



삼베사워타올 - 각 15,000원

- 용 명 - 예고은 삼베 사워 타올
- 재 질 - 헨프사, 죽사
- 용 도 - 세안 및 전신목욕, 탭핑이, 냉수마찰, 스포츠타월, 등산할 때, 한지목욕시사용, 건조마사지용
- 규 격 - 전신용 (90cm x 130cm)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등갈피 피부부를 마사지 합니다. 의술 후 사체 전 위엄으로 건조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각도 예민할 수 있습니다

### 올바른 마사지방

- 여름에는 냉수마찰, 겨울에는 건조,습포 마사지를 권합니다.
- 냉한 체질은 건조, 습포마찰이 좋고 열이 많은 사람은 냉수마찰이 좋습니다.
- 단, 열이 많은 사람은 건조마사지를 무리하게 하지 말고,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냉수마찰을 피합니다.
- 예민한 피부는 문지르는 것에 자극을 받아 피부질환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 합니다.
- 상처나 피부질환시 문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 건포 마사지의 효과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지분비가 좋아지는 피부에 피지진인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지지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겨울철 외상은 버리세요. 비누독이 안 쌓이니 피부가 좋아집니다.
- 죽은 세포나 피지가 매일 제거가 되어 깨끗이 됩니다.
- 몸의 때는 비누 때로 인해 생깁니다. 비누 때가 없어지므로 때가 안 갑니다.
- 한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 현물삼 특별 할인 세트 30,000원

(세트 구매시 배송비 무료 + 추가 할인)

- 구성 : 삼베웨이셀타올 + 삼베수세미 + 삼베사워타올 + 삼베항균비누 3개



현대불교 현물샵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돌잔치, 환갑, 칠순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